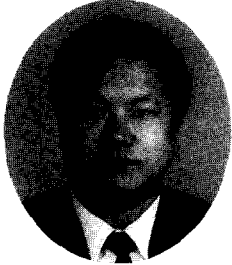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최 명 섭
임업연구원

복자기나무

과명 : 단풍나무과

학명 : Acer Triflorum

영명 : Manchurian Maple

한명 : 鬼目藥木, 牛筋子, 箱子

일명 : おにめぐすり



복자기
나무 단풍

가을 산야를 온통 붉게 물들이는 단풍은 이른 봄의 앳된 꽃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를 두고 옛 시인들은 『楓葉 飄蜀錦』(단풍잎이 아름다운 비단을 흔든다)이라하여 가을 단풍을 찬미했다. 謝靈運의 『晚霜楓葉』이라든가 杜甫의 『玉露凋傷楓樹林』 등이 단풍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중 늦서리 맞은 단풍이 초봄의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예찬한 杜甫의 『山行』이 더욱 인상적이다. 『멀리 비탈진 산길을 올라보니/흰구름 이는 밑에 인가가 있더라/수레를 잠시 멈추고 단풍숲에 앉아보니/늦서리 맞은 단풍잎이 2월꽃보다 더 좋구나.』 가을 단풍을 보는 시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불붙듯 타오르는 단풍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감흥을 일으키게 해주

있다.

가을이 깊어 갈수록 단풍은 왜 붉고 노랗게 물드는 것일까. 이는 나무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위해 월동준비작업으로 수액을 진하게 만들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수액이 진해지면 산도(PH)도 달라지게 되며 이렇게 달라진 산도는 다시 태양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어 갖가지 색으로 변색되는 것이다. 토양산도에 따라 색도 역시 달라지게 마련인데 대체로 강산성일수록 붉은색이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가 홍단풍나무라고 하는 노무라단풍도 잎지 및 개체에 따라 적색의 잎이 검붉은 녹색으로 변하는 것도 토양의 산도가 크게 좌우하므로 식재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속명(屬名) Acer는 단풍나무의 라틴명으로 '갈라진다'는 뜻이며 종명의 triflorum은 '3개의 잎으로 갈라진다'는 뜻이다.

1. 생태적 특성

중북이북 깊은 산의 표고 100-1,300m에 자생하는 낙엽활엽큰키 나무로 수고 15m까지 자라며 지리적으로는 만주에도 분포한다. 갈참나무, 신갈나무, 전나무, 층층나무 등과 함께 혼생하며 생장이 느리고 공중습도가 높은 계곡 부위의 토심이 깊은 곳에서 잘 자라며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 건조한 곳에서도 잘 견디나 단풍의 색깔이 나쁜 단점이 있고 공해



▲복자기나무 꽃

와 염해에 견디는 힘은 보통이다.

2. 형태적 특성

수피는 암수 모두 황갈색이며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진한 녹색을 자랑한다. 잎은 3개의 소엽으로 구성되어 마주나며 긴 타원형 모양의 도란형이고 끝부분 가까이 3-4개의 큰 톱니가 있으며 가운데 소엽은 길이 7-8cm, 넓이 5cm이며 잎자루는 5cm로 털이 있다.

꽃은 암수 단그루이나 간혹 잡성도 있으며 5월에 피고 가지 끝의 화서에 3개가 달리며 꽃자루에 갈색털이 있다. 날개가 있는 열매는 9-10월에 익으며 길이 5cm, 지름 1.5cm이고 날개는 예각 또는 둔각으로 나란히 벌어진다.

유사종으로 복자기에 비해 잎

이 좁고 길며 털이 없고 뒷면 맥 위에만 털이 있고 작은 톱니가 많은 것을 복장나무(A. mandshuricum), 잎이 두껍고 표면에 유두상의 털이 있는 것을 젖털복자기(for. subcoriacea)라고 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단풍나무과에는 세계적으로 2속 150종 내외가 북반구의 온대를 중심으로 분포하나 분포의 중심은 아시아라고 보고 있는데 150종에서 개량된 재배품종까지 합하면 500여 품종이 조경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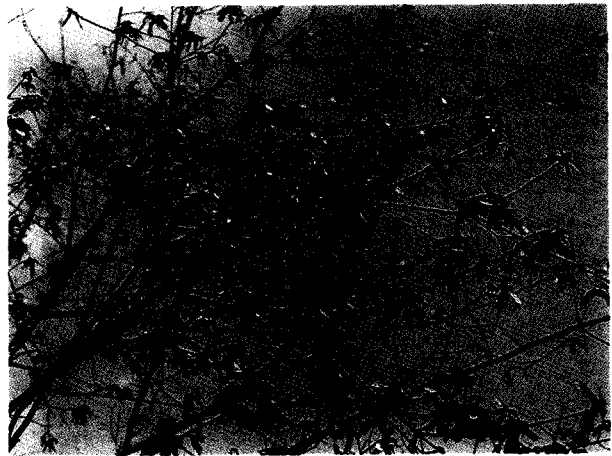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풍나무인 복자기와 복장나무는 단연 최고로 꼽힌다. 이들 단풍나무는 모두 암나무 수나무가 따로 있는데 이



큰 봄에 황금색꽃이 나무전체를 뒤덮는 수나무의 경관이 장관일 뻔더러 가을의 단풍은 불이 붙는 듯하다. 정원이나 공원에 적당하며 공원에서는 군식으로, 가정에서는 1본 정도 식재할 만하며 산간조경에도 필요한 나무로 산악고속도로변에 식재하면 좋다.

4. 번식법

대개 종자번식을 하는데 종자는 9월에 채취하여 음건 후 풍선범으로 정선하여 습기가 약간 있는 모래에 섞어 저온 저장을 한다. 종자는 건조를 싫어 하기 때문에 직파를 하든가 2년간 노천매장을 한다. 발아율은 26% 내외로 파종시기는 3월상-중순경에 m^2 당 80cc(15g) 정도로 산파한다. 시업본수는 49본, 득묘본수는 39본이며 평균 묘고는 24cm, 근원경



복자기나무 열매 ▶

은 4.5mm 가량이다. 과숙한 종자는 발아율이 낮거나 2년 발아하므로 종자가 건조하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저온발아가 되므로 이른 봄에 파종해야 한다. 수분요구도가 높은 수종이므로 상면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5. 그 밖의 용도

번·심재가 모두 홍황색 또는 옅은 홍황색으로 나무 껍질이 곱고 조직이 치밀하며 무늬가 아름다워 가구재나 무늬합판 등의 고급 용재로 쓰인다.